

군산시 나운2동 '대지광고' 착한가게 나눔 동참

✎ 김기현 | ⓒ 승인 2026.04.16 10:07



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지광고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.

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정기후원을 통해 나눔에 동참한 대지광고(대표 백인철)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.

흥남동 진포중 인근에 위치한 대지광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로, 백인철 대표가 매월 3만 원의 정기후원을 약정하며 복지허브화 사업에 힘을 보태게 됐다.

백 대표는 현재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.

백 대표는 “평소 나눔과 기부에 관심이 많아 착한가게 가입을 먼저 문의하게 됐다”며 “이번 기회를 통해 나운2동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정헌태 민간위원장은 “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남귀우 나운2동장은 “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”이라며 “주민과 사업장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/군산=김기현기자



김기현 sisando7@naver.com

저작권자 ©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